

# 宣祖代 政局과 李山海의 정치적 역할

薛錫圭\*

## 차례

1. 머리말
2. 학문연원고 정치철학
3. 정국동향과 정치적 역할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선조대 정치적 동향과 관련하여 李山海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산해는 선조대 거의 전시기에 걸쳐 군주의 확고한 신뢰를 배경으로 정국의 핵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그의 천부적인 순수한 인품과 탁월한 학문적 재능,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자세가 전제되어 있었지만, 그 근저에는 講經과 詞章을 바탕으로 王政을 보좌해 온 家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독자적 정치철학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림세력의 역학관계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왕정체제의 강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했던 것이다. 선조가 뚜렷한 정치적 후원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강화를 통해 정국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치세력의 대립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그 같은 역할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선조의 밀착된 관계는 왕권을 배경으로 한 權臣의 등장을 경계하는 사림세력 전반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었다. 더구나 그것은 독자적인 정치철학의 현실적용을 통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사림세력의 역학구도에 적지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않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가 사림세력의 집중적인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적지 않은 정치적 굴곡을 겪어야 했던 사정도 거기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선조의 신뢰는 변함이 없었고, 그 역시 거기에 부응해 왕정의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일에만 진력했다. 선조대가 문물의 번성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는 시대로 평가될 수 있었던 초석은 여기에서 마련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산해의 역사적 위상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 주제어

李山海, 士林政治, 道學政治, 朋黨政治, 王政, 詞章學, 義理學

## 1.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조대는 조선왕조의 정치질서가 재편되는 변화의 시기였다. 명종 말 尹元衡(?~1565)을 중심으로 한 勳戚政權이 붕괴된 뒤 정국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士林勢力은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그들은 王權을 배경으로 독점적 권력기반을 확보한 가운데 배타적인 정국운영으로 사상적 혼돈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인 폐해를 유발했던 훈척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주력했다. 그들은 훈척정권의 국가경영 철학의 빈곤이 그 같은 피폐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道德과 名分の 실천을 우선하는 道學의 이념을 토대로 한 정치철학의 정립에 나서는 한편, 士林政治의 정착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사림세력은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훈척정치 잔재청산의 범주와 사림정치 정립의 방향을 둘러싸고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배경에는 그들의 학문적 宗匠들에 의해 정립된 성리학적 세계관

에 근거한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의 차별적 경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결과 사림세력은 정국운영의 시각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각각 學派를 매개로 한 政派를 형성해 朋黨의 역학관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사림세력의 정치적 분화의 명분에는 군자·소인집단의 분별을 위한 봉당의 불가피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군주의 봉당참여를 촉구한 歐陽脩의 '朋黨論'과 朱熹의 '引君爲黨說'에 근거한 이른바 성리학적 봉당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sup>1)</sup> 그들은 이를 앞세워 학과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반영한 각각의 정치철학을 정립한 가운데 대립체제를 확립했다. 南冥學派가 주축이 된 北人의 理氣分對論에 근거한 君子小人論 내지 激濁揚清論이나, 退溪學派가 중심을 이룬 南人의 理氣隨乘論에 입각한 調劑蕩平論, 栗谷學派로 구성된 西人의 理氣妙合論에 기반한 保合論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하겠다.<sup>2)</sup>

봉당의 정치철학 정립과 역학관계 조성은 사람의 정국주도와 더불어 재야 유생을 포함하는 정치참여 계층의 확대를 보장하는데 비중이 두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군주의 정치적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己卯士林의 등장 이래 '君臣共治'의 논리가 공감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림세력이 왕권과 밀착하여 權臣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戚臣의 존재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등의 양상은 왕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sup>3)</sup> 특히 일찍 아버지를 여윈 데다 未婚의 상태에서 母親의 상중에 즉위한 선조로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비록 王政體制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군주의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상실은 정국운영 주도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자 궁극에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했던

1) 이태진,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2003.

2) 설석규, 『조선중기 사림의 도학과 정치철학』, 경북대출판부, 2009.

3) 김돈,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7.

것이다.<sup>4)</sup>

선조대의 정국은 이같이 王權과 臣權이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정치세력의 역학관계가 정립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sup>5)</sup> 다시 말해 선조는 사림세력의 분열을 조장하며 신권의 집중적인 견제에서 벗어나면서도 조정권의 극대화를 통해 왕권강화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조가 戚臣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도 거기에 있었다.<sup>6)</sup>

그러나 선조의 그 같은 왕정체제의 강화는 자신의 국가경영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선택을 통해 보장받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비록 사림으로 정치세력의 형성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군주의 신임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王政을 보좌한 사림의 존재에 대해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사림세력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참여하면서도 선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왕정체제 유지에 기여했던 鵝溪 李山海(1539~1609)의 역할이 부각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sup>7)</sup>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산해의 정치철학과 더불어 정치적 역할을 조명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먼저 그의 학문 및 정치철학이 갖는 독자적 성격을 검토한 다음, 선조대 그의 정치적 활

- 4) 조선시대 王政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동향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은 이태진,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 1993. 참조.
- 5) 선조대의 정국동향을 검토한 주요 논고로는 김항수, 「선조 조년의 신구갈등과 정국동향」 『국사관논총』 34, 국사편찬위원회, 1992; 구덕희, 「선조대 후반(1594~1608)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서울대 국사학과, 198; 남달우, 「조선 선조대 정국운영에 관한 연구」, 인하대박사학위논문, 1998; 이희환, 「선조대 동·서분당의 배경과 원인」 『전북사학』 27, 전북사학회, 2004; 김성우, 「선조대 사림파의 정국장악과 개혁노선의 충돌」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등이 있다.
- 6)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선조대 정국동향을 분석한 대표적 논고로는 이상혁, 「조선조 기록옥사와 선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 43, 역사교육학회, 2009가 주목된다.
- 7) 李山海에 주목한 연구 성과는 그의 문학작품을 분석하는데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선조대 정국과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본격적인 논고를 찾을 수 없다.

동과 더불어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조감해 보고자 한다.<sup>8)</sup>

## 2. 학문연원과 정치철학

李山海의 本貫은 韓山이고 字는 汝受이며 號는 鵝溪·終南睡翁·竹皮翁·柿村居士이다. 그는 李穀(1298~1351), 李穡(1328~1396) 부자의 후예로서 대대로 文翰으로 명성을 얻은 가문을 배경으로 태어났다.

이색은 일찍부터 고려와 원나라에 문명을 날리며 門下待中에 오르고 韓山伯에 봉해졌으며, 자질이 뛰어나고 학문이 精博할 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데 관대하면서도 사리에 밝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문장을 지을 때 붓만 잡으면 거침이 없었고 내용 또한 정밀하면서도 절실한 면이 있었다<sup>9)</sup>고 한다. 또한 그의 三子로서 中樞院使를 역임한 李種善(1368~1438)은 15살에 大科에 합격하여 주위를 놀라게 한 바가 있으며, 조정에서 효자비를 세우고 旌門할 정도로 효성으로도 명성이 높았다. 그는 뒤에 '良景'의 諡號를 얻을 만큼 평소 성품이 온후하고 관대하면서도 처신에 있어서는 의리로 일관한 면을 보여 주었다.<sup>10)</sup>

이종선의 아들 李季甸(1404~1459) 역시 集賢殿學士로 발탁되어 문학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성품이 寬厚하면서도 기개와 도량이 크고 넓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관직이 都承旨를 거쳐 領中樞院事에 올랐으며, 세조의 즉위에 기여한 공으로 靖難功臣과 佐翼功臣에 책록되기도 했다.<sup>11)</sup> 그의 아들

8) 여기에 활용된 자료 가운데 조선왕조실록과 방목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거했으며, 문집자료는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 아계일고』를 참고했다.

9) 『대조실록』 권9, 5년(1396) 5월 7일.

10) 『세종실록』 권80, 20년(1438) 3월 14일.

11) 『세조실록』 권17, 5년(1459) 9월 16일.

李堦(1432~1467)도 비록 36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기는 했으나, 增廣試와 重試에 잇달아 합격하고 관직이 成均館大司成에 이를 정도로 촉망을 받았다.<sup>12)</sup>

이산해의 증조부로 奉化縣監을 지낸 李長潤(1455~1560)과, 조부로 水原判官을 역임한 李穰(1477~1530)도 가업을 계승하며 문장으로 이름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관후한 인품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특히 이치는 평소 글을 읽기를 좋아하면서도 家産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학행으로 천거되어 관직에 나아가서도 재물을 탐내는 법이 없었다<sup>13)</sup>고 한다.

이산해는 1539년(중종 34) 윤7월 20일 서울 皇華坊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李之蕃(1508~1581)이고, 어머니는 宜寧南氏 修의 딸이다. 이지번은 이치의 次子로 지는 馨伯이고 호는 省庵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침착하여 장난을 좋아하지 않았고 병든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찢러 피를 받아 약을 조제할 만큼 효성이 지극했다. 1546년(명종 1) 進士試에 합격한 그는 掌隸院司評 등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윤원형이 아들 이산해가 神童이라는 소문을 듣고 사위로 삼으려 하자 벼슬을 버리고 동생 李之藹(1517~1578)과 함께 丹陽의 龜潭에 은거했다.<sup>14)</sup>

실제 이산해는 태어난 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글자를 먼저 알았고 6세 때부터 草書와 隸書를 잘 써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일찍부터 맑고 순수한 자질을 바탕으로 진솔하면서도 순후한 처신을 보이며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sup>15)</sup> 물론 그의 筆力과 文章力은 배워서 이룬 것이 아닌 타고난 재능의 산물로 일컬어졌다.<sup>16)</sup> 그러나 그가 5세 때부터 숙부 이지함의 지도를 받으

12) 『國朝文科榜目』 권2, 端宗朝 癸酉增廣榜.

13) 『鵝溪遺稿』 권6, 銘類 祖父墓碣銘.

14) 『선조수정실록』 권9, 8년 12월 1일.

15) 『명종실록』 권29, 18년 10월 1일 “自六歲時 以工於草隸名世 且資清粹 有眞淳之行”

16) 『鵝溪遺稿』 年譜 附錄, 誌文 鵝城府院君李公墓誌銘 “疇若孩提 神明已通 詞非學到 筆自

며 글을 배운 점으로 미루어 대대로 문장으로 명망을 얻은 가문의 영향이 적지 않은 작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지함 역시 형의 권고를 받고 뒤늦게 학문에 매진하여 經史와 諸子百家에 통달하기도 했지만, 글을 쓰면 평소에 익힌 것처럼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탁월한 문장력을 발휘하기도 했던 것이다.<sup>17)</sup>

이 때문에 이산해는 주로 講經과 詞章을 근간으로 한 家學을 배경으로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나갔다. 물론 그의 학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부친이었지만, 숙부 또한 그가 학문을 통해 현실인식과 대응자세를 확립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이지함은 항상 聖人の 경지는 배워서 도달하는 법이라며 敬을 위주로 한 자세로 경전의 이치를 궁구하고 실천을 돈독하게 하는 것을 학문의 요체로 삼았다. 또한 그는 의리를 논변하거나 시비를 분별할 때에는 명확하고도 빠른 통찰력으로 사물의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하였다<sup>18)</sup>고 할 정도로 사리에 밝은 측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한 이지함의 학문적 자세는 성리학에 근거한 현실인식과 대응자세를 정립하는 토대가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정립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던 李珥(1536~1584)가 성리학의 실천철학을 도모하는 道學의 궁구를 권유했을 때, 그가 사람이 향하는 곳이 天理가 아니면 人欲이지만 자신은 방심하기를 좋아하고 법도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던<sup>19)</sup>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지번 역시 李滉(1501~1570)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도

---

天得”

17) 『선조수정실록』 권12, 11년 7월 1일.

18) 『鵝溪遺稿』 권6, 銘類 叔父墓碣銘.

19) 『선조수정실록』 권12, 11년 7월 1일.

학에 주력하도록 권유를 받기는 했으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면모를 보였다.

그 같은 이지번 형제의 태도는 주자성리학의 독자적 해석을 통한 학문적 도식화 시도를 거부하는 것이자 그에 근거한 현실대응 자세의 규범화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그들이 당시 徐敬德(1489~1546)을 비롯해 曹植(1501~1572)·李滉·李珣 등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주자성리학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규정화된 도학적 학문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그에 기반한 독자적인 현실인식과 대응자세를 확립하던<sup>20)</sup> 분위기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이산해가 講經과 詞章을 근간으로 하는 가풍을 견지한 가운데 특정 學派·政派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 및 정치적 교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산해의 가문이 성리학의 새로운 해석을 지향하는 분위기에 부정적이었던 사실은, 그들의 관심이 思辨의 학문을 토대로 한 修身보다는 經世를 우선하는 治人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지함이 항상 작은 고을을 얻어 다스리게 되면 가난한 백성을 부자로 만들고 야박한 풍속을 돈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정치를 수습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며 장담한 것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 그는 말년에 牙山縣監으로 부임하자 乞人廳을 설립하는 등 백성구제와 민폐제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며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망을 얻기도 했다.<sup>21)</sup> 이지번도 선조 즉위 초 李滉의 권유로 淸風郡守에 부임하여 청렴하면서도 공정한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그가 떠난 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功績碑를 세워 德과 風節을 기릴<sup>22)</sup> 정도로 수령으로서의 모범을 보였다.

20) 설석규, 『조선중기 사림의 도학과 정치철학』, 경북대출판부, 2009.

21) 『鵝溪遺稿』 권6, 銘類 叔父墓碣銘.

그러한 이지번·이지함의 행적은 이산해가 관료로 진출하여 정치세력의 역학관계에 참여하면서도 궁극적으로 王政을 보좌하기 위한 정치철학의 정립과 함께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발판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지번이 이황으로부터 도학의 공부를 권유받고 이지함이 이이 등 도학과 名節에 투철한 사림들과 폭넓은 교유관계를 유지했던 사실<sup>23)</sup> 등은 이산해가 학과의 세계관에 매몰되지 않고도 다양한 인맥관계를 형성하여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가 성리학의 궁구를 통한 도학적 義理學 체계를 내면적 인격함양에만 국한하여 활용하는 대신 講經과 詞章의 학문 체계를 經世를 위해 투영하는 가풍을 계승한데 따른 결과였다.<sup>24)</sup>

이러한 이산해 가문의 가풍은 그가 白光弘(1522~1556)·李純仁(1533~1592)·宋翼弼(1534~1599)·河應臨(1536~1567)·尹卓然(1538~1594)·崔崱(1539~1612)·崔慶昌(1539~1583) 등과 더불어 이미 선조대 ‘八文章’으로서<sup>25)</sup> 사림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을 비롯해, 복인뿐만 아니라 서인과 폭넓게 교유하며 문장으로 명성을 얻은 李慶全(1567~1644)이나, 서인정권에서 문풍을 주도하며 정당한 처신으로 일관함으로써 ‘駢角’으로 기대를 모은 손자 李裒(1600~1684)<sup>26)</sup> 등 후손들에게도 계승되었다. 이에 따라 許穆(1595~1682)은 이무의 문장을 이산해·이경전보다 높게 평가하면서, 문장은 하늘과 땅의 精英한 기운이어서 創業할 때 자연히 나오는 법이기

22) 『선조수정실록』 권9, 8년 12월 1일.

23) 『선조수정실록』 권7, 6년 5월 1일.

24) 이산해는 평소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는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선비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孟子』를 읽을 필요가 있다며 유교경전을 토대로 한 經世에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鶴溪遺稿』 年譜, 萬曆 18년(1590)). 이에 반해 그가 『近思錄』을 비롯한 성리서에 관심을 가진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5) 『선조수정실록』 권23, 22년 12월 1일. 『선조수정실록』 권18, 17년 2월 1일에는 河應臨 대신 李珪를 포함시키고 있기도 하다.

26) 『인조실록』 권47, 24년 10월 24일.

때문에 守成하는 임금이 복돋아 기르면 하늘의 운수도 열릴 것이라<sup>27)</sup>며 그들 가문의 문풍이 왕조의 존립에 기여한 사실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이산해의 가문이 도학적 의리학에 근거한 修己를 앞세우기보다 사장학을 발판으로 한 經世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독자적 세계관에 근거한 出處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적 세계관에 입각해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형성하는 발판이 되었던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선조 7년(1574) 4월 李珥가 선조의 回天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계기로 大司諫을 사직하자, 그가 義理를 앞세워 出處를 결정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세속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처신의 방법을 제시한<sup>28)</sup> 것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沈義謙(1535~1587)·金公諒(?~?)을 비롯한 왕실의 외척뿐만 아니라 李潑(1544~1589)·洪汝諄(1547~1609) 등 大北系, 柳永慶(1550~1608)·南以恭(1565~1640) 등 小北系, 趙穆(1524~1606)·柳成龍(1542~1607) 등 南人系, 李珥·鄭澈(1536~1593) 등 西人系의 핵심적 인물들과 학파 및 정파를 뛰어넘어 광범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도 거기에 있었다.

이산해가 사림의 보편적 지지를 통해 왕권강화를 추진하던 선조의 신임을 받으며 정치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선조의 이산해에 대한 절대적 신임은 그가 才氣가 있으면서도 과장하려는 생각이 없어 덕이 있는 사람이라 판단했다<sup>29)</sup>며 일찍부터 重用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가 吏曹判書에 재직하는 동안 끊임없는 모함에 시달리다 병을 이유로 사직할 의사를

27) 『숙종실록』 권4, 1년 윤5월 9일.

28) 『栗谷全書』 권29, 經筵日記2 萬曆 2년 4월 “大司諫李珥謝病免 旋拜右副承旨 復以疾免 遂歸鄉里 李山海謂珥曰 君欲退則只辭病而已可也 何必於經席啓達乎 珥曰 只呈病狀 似是模糊 山海曰 君既出處以義 勢不可在朝 如我者 既以世俗模樣自處 只得保位而已”

29) 『선조실록』 권15, 14년 7월.

## 표명하자 선조가

경이 이조판서에 제수된 이래 비루한 풍습을 일시에 씻어버리고 用舍와 進退를 아주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자 사람들이 감히 私情을 개입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하물며 偏黨을 지어 만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능히 간사함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지난 시대에서 찾아보아도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한쪽에 치우쳐 있는 나라의 末世에 경과 같은 사람이 있기에 내가 깊이 신임하고 감복하여 만약 갑자기 경이 떠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을 듯이 여겼다. 대저 君臣의 사이란 그 의리가 지극히 엄하여 옛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신명을 바쳤고, 진실로 국가에 이로운 일이라면 사람들의 말이 구름처럼 일어나 많은 비방이 들끓어도 걱정하지 않았다. 지금 경은 중요한 자리를 이리저리 피하고 자취를 거두어 물러가 국가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보존코자 도모하니, 어찌 大義를 잃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경을 社稷의 신하로 여긴 것이 잘못이다.<sup>30)</sup>

라며 만류하고 나서기도 했던 것이다. 그 같은 신임은 그가 정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왕이 그의 職銜을 말할 뿐 한번도 姓名을 칭하지 않으며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sup>31)</sup> 것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같은 이산해의 폭넓은 인맥형성과 선조의 절대적 신임의 저변에는 가풍을 계승하며 갖춘 진솔하면서도 정직한 그의 천부적인 인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이전 명종대 실록에 보이는 그의 인품의 일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醇厚하고 熟成한 면이 있어 참으로 얻기 어려운 선비이다.<sup>32)</sup>
- 타고난 자질이 맑고 순수하며 행실이 진솔하고 순박하다.<sup>33)</sup>
- 사람들이 天仙으로 바라보니 참으로 奇士이다.<sup>34)</sup>

30) 『선조실록』 권21, 20년 7월 15일.

31)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2일.

32) 『명종실록』 권29, 18년 7월 26일.

33) 『명종실록』 권29, 18년 10월 1일.

• 천품이 뛰어나고 才藝가 숙성하였으며, 登科한 뒤 才行으로 重望을 얻었다. 35)

이산해의 그러한 인품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 친화력을 발휘하는 토대가 되었다. 여기서 그의 공정한 자세는 선조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것은 특히 그가 이조판서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이이는 그가 인물을 직접 검증하고 공론을 반영한 인사로 일관하며 일체의 청탁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門庭이 쓸쓸하기가 가난한 선비의 집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인사원칙이 몇 해만 지속된다면 인심과 세도가 크게 변할 것이라<sup>36)</sup>며 적지 않은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산해의 정당하면서도 공정한 자세는 당색을 배제한 가운데 정치적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정치세력의 불만을 야기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물론 그는 선조대 개혁에 적극적인 사람을 주축으로 한 東人·北人·大北으로 연결되는 세력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領袖로까지 지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西人·南人·小北세력의 비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자파에게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광해군대 대북세력의 주도로 편찬된 『宣祖實錄』을 비롯해 인조대 서인세력에 의해 편찬된 『宣祖修正實錄』과 『光海君日記』에서 공통적으로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이산해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하여 역학관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에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보다는 군주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판단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정치세력의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신임을 받

34) 『명종실록』 권34, 22년 1월 12일.

35) 『명종실록』 권34, 22년 4월 25일.

36) 『선조실록』 권15, 14년 7월.

고 있었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정치적 행보는 군주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선조의 국가경영 방향이 그에게 투영되어 구현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는 선조와 이산해가 갖는 국가경영 철학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정치적 연대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선조의 당색을 초월한 정국운영이 가능했던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산해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 對日政策에 관해 선조에게 올린 獻議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常經과 權宜의 방법이 있으며 이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왕에게 강조한 바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대비를 확고하게 하고 있을 경우 일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경이라면, 내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경우 그들의 예봉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권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경과 권의를 적절하게 활용할 때 국가의 존립도 보장될 수 있지만 선택에 잘못이 있다면 국가적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곧 우리의 형세가 적과 싸울 만 한데 姑息에 빠져 和議를 주장한다면 의리를 무너뜨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승리를 위한 계책을 세우지 않은 채 화의를 부정하고 싸울 것만 고집한다면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모두 상경과 권의에 통달했다고 볼 수 없다<sup>37)</sup>는 것이다.

그 같은 이산해의 견해는 단순히 대외정책에 국한하여 제기된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의 선택에 선조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정치세력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정국운영에 있어 상경과 권의의 탄력적 선택보다는 자과의 정치철학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37) 『선조실록』 권166, 36년 9월 3일.

우선 南冥學派가 주축을 이룬 北人(大北)세력은 曹植의 分對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善·惡, 正·邪의 분별에 투철한 이분법적 君子小人論을 앞세워 훈척정치의 잔재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급진적 개혁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들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을 주도하고 나선 것도 군자·소인의 분별을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적용하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退溪學派가 중심이 된 南人세력은 李滉의 隨乘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군자의 상호발탁을 통한 정치세력의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調劑蕩平論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들이 동인과 서인의 조제에 나서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동인에서 북인과 분화하여 남인으로 좌정하게 되는 과정이나, 柳成龍이 전쟁의 종식을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다 대북세력에 의해 ‘主和誤國’으로 몰려 실각을 당하게 되는 양상은 그들의 정치철학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栗谷學派를 근간으로 한 西人세력은 李珣의 妙合의 세계관을 토대로 가치분별보다는 사림세력의 정치적 화합을 도모하는 保合論을 제기하며 온건하면서도 포용적인 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그들이 척신의 정치개입을 차단하여 훈척정치 잔재청산의 상징성을 보장받으려는 청년사림의 동향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이이 등이 사림세력의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정치적 화합을 도모하게 되는 모습이 그들의 정치철학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sup>38)</sup>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림세력이 분열하여 정치적 역학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립을 전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주의 입장으로는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대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택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산해가 선조에게 常經과 權宜의 방법을 주문한 것도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38) 이상의 내용은 실석규, 『조선중기 士林의 道學과 政治哲學』, 경북대출판부, 2009 참조.

확보함과 동시에 黨禍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것이 그가 대북세력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이해에 연연하지 않는 논리적 기반이 되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군주의 신뢰를 얻으면서도 정치세력 전반의 비판을 받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그가 대북세력에 의해 작록에 집착한 나머지 晩節을 보전하지 못했다<sup>39)</sup>거나, 서인세력에 의해 군주의 뜻을 얻어 남을 모함하는 일을 일삼았다<sup>40)</sup>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정치세력의 이산해에 대한 경계의 조짐은 이미 그가 선조에게 사대부들이理財에 관심을 갖는 풍조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할 때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그의 문제제기는 단순히 사대부의 개인적인 생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 저변에는 정치세력의 경제적 기반강화를 통한 정치적 비대화와 더불어 그로 인한 국가 조세수입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었다.

명종대 훈척정권을 무너뜨리고 사림세력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향촌을 무대로 한 그들의 재지적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sup>41)</sup> 곧 16세기 이래 향촌의 중소지주인 사람들은 훈척세력이 해안지역 등을 간척하는 墾田의 개발에 주로 관심을 가진 것과는 달리, 川防의 축조를 통해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업생산력을 증대함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에 정국주도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42)</sup>

사람들의 그 같은 경향은 선조대에도 계속되었는데, 그것이 학파를 매개로 한 정치세력의 형성과 맞물려 봉당의 경제적 기반확보를 위한 경쟁에 활용

39) 『선조실록』 권115, 32년 7월 15일 및 동 권122, 33년 2월 19일.

40) 『광해군일기』 권19, 1년 8월 23일.

41)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42)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농업기술 발달과 사회변동—』, 지식산업사, 2008.

될 여지는 충분하게 있었던 것이다. 선조 13년(1580) 大司諫 金添慶(1525~1583)이

근래 士習에 대하여 사대부 사이에 의논이 분분합니다. 부자가 된 후에야 선을 행할 수 있다며 名士라는 사람들도 모두 재산을 늘릴 일만 생각합니다. 蘆田과 海澤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陳田까지도 제방을 쌓거나 개펄을 파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回文을 돌려 합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자도 있으니, 그 마음가짐이 매우 밝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잃고서 뒤에 선을 행한다는 말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께서는 다시 신척하고 격려하시어 이러한 폐습을 근절시키기 바랍니다.<sup>43)</sup>

라 지적한 것이 그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김첨경의 지적에 대해 大司憲 李山海도 동조하여 과거 관료로서 田莊을 늘이거나 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탄핵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근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sup>44)</sup> 이에 대해 선조 역시 공감하며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끝내 문제제기의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정치세력의 조직적인 방해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吏官이 이에 대해 지나치게 심한 자가 있으면 논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확인도 되지 않은 애매한 지적으로 군주가 오히려 사대부를 가볍게 여겨 믿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sup>45)</sup>며

43) 『선조실록』 권14, 13년 5월 26일.

44) 이산해가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가문이 대대로 관직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지 않는 등 淸貧한 생활을 가풍으로 이어온 전통도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선조 14년(1581) 母親喪을 당했을 때 선조가 祭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그를 돕도록 지시하자, 그는 왕에게 올린 謝恩疏에서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가난하여 몇 뼤기의 척박한 토지조차 갖지 못했으며 母자가 祿俸에 의지해 살아왔음을 전하기도 했다(『鵝溪遺稿』 권5, 疏類 丁憂謝賜祭需疏).

45) 『선조실록』 권14, 13년 5월 26일.

비난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이산해가 정치세력과 연대하면서도 정치적 이해보다는 王政의 보좌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가 정치세력의 경계와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조와 국가경영 철학의 공감대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선조가 戚臣뿐만 아니라 權奸에 의존하지 않은 데다 붕당의 역학관계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주중심의 정국운영을 유지하며 왕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던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이산해는 家學을 계승하며 형성한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인품으로 토대로 정치세력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선조의 입장을 반영하며 왕정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철학을 정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선조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경과 권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정국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사대부의 田莊확대의 규제를 통해 정치세력의 경제적 기반강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과행을 예방할 것을 주문한 배경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고, 정치적 안정을 발판으로 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가 선조에게 貢納과 進上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뇌물인 人情價物이 민폐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근절할 것을 촉구한<sup>46)</sup>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선조대 전시기에 걸쳐 군주의 절대적 신임을 얻으며 정치적 행보를 같이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46) 『선조실록』 권25, 24년 12월 1일.

### 3. 정국동향과 정치적 역할

李德馨(1561~1613)은 그의 장인 이산해가 세상을 떠난 뒤 지은 墓誌銘에서

공의 天稟은 매우 高邁하였고 神通력이 있다고 할 정도로 숙성하였다. 아버지 省庵公은 그가 아름다운 器局을 잘 보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戒遜과 근면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공이 가정의 교육을 잘 받아 조정에 나아간 지 49년 동안 일찍이 才智를 가지고 남 앞에 나서는 일이 없었으며, 말도 유창하지 않고 몸놀림도 느려서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보였다. 숙부 土亭公이 매번 공의 아름다운 자질을 칭찬하면서 글을 배워 보충한다면 上智의 다음은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평소 사람을 상대하는 태도가 매우 자상하고 신중하였다. 세심한 계획과 원대한 사려는 난리를 당해서도 혼선을 빚지 않았으며, 확고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때에는 춘추시대 孟賁·夏育과 같은 勇士의 기개를 보여 힘센 사람도 어찌 하지를 못하였다.<sup>47)</sup>

라고 평가하며 그가 관료로 재직하는 동안 가학에서 연원한 고매하고 숙성된 인품을 바탕으로 신중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한 삶을 살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평가의 근거에는 이산해의 정치적 활동이 정치세력의 이해와 밀착된 것이 아닌 가풍을 연원으로 하는 독자적 소신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표방하기 위한 의도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해는 20세가 되던 해인 1558년(명종 13) 시행된 式年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다.<sup>48)</sup> 이후 성균관에서 과거시험 준비를 하던 그는 1560년(명종 15) 왕이 명륜당에서 직접 거행한 製述試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殿試에 直赴되었고,<sup>49)</sup> 이듬해 23세 때 시행된 대과에서 丙科로 합격했다.<sup>50)</sup> 이같이

47) 『鵝溪遺稿』年譜附錄, 誌文 鵝城府院君李公墓誌銘.

48) 『司馬榜目』明宗 戊午 式年試.

49) 『명종실록』 권26, 15년 4월 24일.

그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순조롭게 등과할 수 있었던 것은 詞章과 講經의 전통을 이어온 家學에다 그가 어릴 적부터 筆力뿐만 아니라 文章에 탁월한 역량을 갖추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承文院權知副正字의 分館과정을 거친 뒤 弘文館正字에 제수되자마자 명종이 그에게 '景福宮' 大額을 쓰도록 하고,<sup>51)</sup> 이후 홍문관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의 啓·箭·疏를 그가 작성한 것에서 그러한 사실을 살필 수 있다.

이산해가 官界에 진출하던 명종대 후반은 훈척정권에 의한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조선왕조의 말기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던 때였다. 사람세력에 의해 이른바 三胤으로 지목된 尹元衡·李樾(1519~1563)·沈通源(1499~?)이 주도한 훈척정권은 배타적인 독점권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 파국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정·비리 등 각종 병리현상을 유발하며 사회·경제적인 파탄을 야기하고 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은 두말 할 필요가 없고 국가 경제와 더불어 민간경제의 피폐도 심화되어 백성들의 유망현상이 보편화하는 등 민심이반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sup>52)</sup> 당시 임궫정의 난을 비롯한 民亂이 각지에서 빈발한 것이 그러한 양상을 극명하게 반영한다고 하겠다.<sup>53)</sup>

훈척정치의 극한적 모순상황은 결국 왕권을 배경으로 사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權奸의 발호에 의해 초래된 것이었다. 그들은 국가경영 철학을 근본적으로 결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조차 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람세력에게 있어 시급한 과제는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권간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명종 18년(1563) 이산해가

50) 『國朝文科榜目』 권7, 明宗朝 辛酉式年榜.

51) 『鵝溪遺稿』 年譜, 嘉靖 41년(1562).

52) 명종대 사회·경제적 실상에 대하여는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참조.

53) 한희숙, 「16세기 임궫정 난의 성격」, 『한국사연구』 89, 한국사연구회, 1995.

副提學 奇大恒(1519~1564)을 중심으로 한 홍문관 관원들과 함께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吏曹判書로서 전횡을 일삼던 이량의 탄핵을 주도하고 나선 배경도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우선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주의 왕권을 발판으로 한 확고한 위상정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만약 권력이 신하에게 옮겨갈 경우 나라가 危亡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량이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앞세워 저지른 만행을 일일이 적시하는 한편,

대저 權奸이 조정의 정치를 독단할 경우 반드시 먼저 위엄을 세워 사람들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한 다음 사람에게 화를 전가하고 나라에 해악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은 고립되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종사는 날로 위태로워지게 되고 끝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예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大臣들은 전하의 股肱인데도 말을 하지 못하고, 臺諫은 전하의 耳目인데도 규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바로 서지도 못하고 바로 보지도 못한 채 李樛이 있는 줄만 알지 전하가 계신 줄은 모릅니다. 신하된 자로서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流放에 이르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54)

라며 그의 척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문관의 차자에 명종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이량의 관작을 삭탈함과 동시에 門外黜送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명종 20년(1565) 윤원형이 사림세력의 집중적인 공세로 실각한 것을 계기로 훈척정권이 붕괴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산해는 명종대 후반 정계에 진출한 이후 사림세력과 공조한 가운데 훈척정권을 종식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이량이 실각한 이후에도 홍문관을 비롯한 清要職을 두루 거치

54) 『명종실록』 권29, 18년 8월 19일.

고 있는 양상과, 사림세력에 의해 才行 등으로 전반적인 重望을 얻고 있는 것에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살필 수 있다. 이는 그가 사림세력 가운데 개혁에 적극적인 신진사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림세력의 정국주도 이후 그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선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이산해는 司諫院大司諫을 비롯해 弘文館直提學·成均館大司成 등 文翰職과 言官職을 역임하며 군주의 정치적 자문과 더불어 간쟁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吏曹의 佐郎·正郎·參議 등을 거치며 銓官으로서 개혁적 인물을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할은 그의 학문적 위상과 더불어 淸粹한 자질과 眞淳한 행실로 天仙과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된 인품에 비추어 정치적 경륜이 없는 상태에서 즉위한 선조의 보좌역을 감당한 사림의 공론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그가 사림세력의 분열조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굳힐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사실 선조대 초반 정국은 척신의 정치참여 배제를 비롯해 훈척정치의 인적 청산의 범주를 둘러싸고 사림세력이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곧 훈척세력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던 장년사림들은 정치적 과행에 책임이 있는 인물만을 도태의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훈척정권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청년사림들은 척신뿐만 아니라 그들과 직·간접적인 인맥관계를 갖는 인물들의 청산을 통해 도덕과 명분에 투철한 사림에 의한 道學政治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견해차가 신·구 사림의 갈등을 야기했고, 그것이 뒤에 청년사림이 주축이 된 東人과 장년사림을 중심으로 한 西人으로 분열하는 축매제가 되었던 것이다.<sup>55)</sup>

물론 이산해는 그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년 및 청년사림의 축망을 받고 있었지만, 당시 그가 훈척정치의 잔재청산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

55) 김항수, 「선조 초년의 신구갈등과 정국동향」 『국사관논총』 34, 국사편찬위원회, 1992.

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사림에 의해 더 기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奉常寺正으로 발탁된 具怵과 忠淸監司 李忠綽의 행적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왕에게 파직을 요구하고 나선<sup>56)</sup> 것이나, 王政은 포용력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乙巳被禍人 등 사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伸冤을 적극 주장하고 나선<sup>57)</sup> 것은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청년사림들이 과거청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조판서 鄭惟吉(1515~1588)과 대사헌 李陽元(1526~1592) 등 전관과 언관을 탄핵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던 것이다.<sup>58)</sup>

그러나 이산해가 청년사림의 입장을 반영해 훈척정치의 잔재청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장년사림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장년사림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며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었다. 이는 그가 학파의 세계관과 접목된 정파의 이해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선조 8년(1585) 경부터 척신 沈義謙의 정치개입 여부를 두고 대립을 전개하던 신·구 사림은 급기야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고 말았다. 물론 그들의 분열의 명분에는 歐陽脩·朱熹에서 연원하는 성리학적 朋黨論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學派의 세계관이 반영되면서 붕당은 그것을 매개로 개편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君子·小人의 분별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南冥學派와 退溪學派가 동인의 주류를 형성하며 급진적 개혁을 지향한 것과는 달리, 서인세력은 사람의 보합을 앞세우는 李珥의 정치철학을 반영한 가운데 점진적 개혁방향을 모색했다. 이러한 사림세력의 학파를 매개로 한

56) 『선조실록』 권7, 6년 6월 25일.

57) 『선조실록』 권8, 7년 6월 4일.

58) 『선조실록』 권8, 7년 9월 26일.

분열은 정합성을 갖춘 정치철학의 대결을 보장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학과적 이해에 매몰된 나머지 군주를 중심으로 한 정국운영 체제를 약화시키고 정치 세력의 균형을 와해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동인세력이 君子小人論을 앞세워 심의겸뿐만 아니라 沈通源 등 척신의 탄핵을 고리로 하여 서인 세력에 집요한 공세를 가하며 정국을 주도하는 양상이 지속되는 상황이 그것을 말해준다.

선조 14년(1581) 이산해가 이이의 추천으로 선조에 의해 이조판서로 발탁된<sup>59)</sup> 것은 그 같은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정치세력의 역학관계 조정을 통해 왕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공감대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이가 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는 그에게 혼탁하고 타성에 젖은 정치현실을 바로 잡아 公道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sup>60)</sup>며 강력하게 출사를 촉구하고 나서고, 선조 역시 才氣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과시하지 않는 그의 겸손한 모습에 일찍부터 호감을 갖고 있었다<sup>61)</sup>며 깊은 신뢰를 표시한 사정도 여기에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請託과 私情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로 정치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당색에 연연하지 않는 폭넓은 친분관계를 통해 군주중심의 정국운영 체제를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가 이를 계기로 정승의 물망에 올라<sup>62)</sup> 군주 및 사림의 기대를 받음과 동시에, 선조의 明察에 힘입어 銓長이 된 이래로 私黨이 조정을 혼탁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sup>63)</sup>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59) 『선조실록』 권15, 14년 4월 17일.

60) 『栗谷全書』 권30, 經筵日記3 萬曆 9년(1581) “李山海謝病不出 李珥往問之曰 公受國厚恩 當此國勢危急之時 當盡職以報君恩 何爲引疾 以孤士望乎 山海曰 冢宰是一國重任 我何以當之 珥曰… 吏曹則公必不循私請 大張公道矣 此豈小補乎 近來政事溷濁 願公勉出一洗舊染之習.”

61) 『선조실록』 권15, 14년 7월.

62) 『선조수정실록』 권17, 16년 8월 1일.

63) 『선조실록』 권19, 18년 1월.

전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산해의 私情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본다면 동인과 서인의 모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선조 18년(1585) 이후 그에 대한 실록의 평가가 한 시대를 도야시키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sup>64)</sup>며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서인계 조관과 유생들이 잇달아 그의 편중된 인사를 비판하고 나선<sup>65)</sup> 사실은 당시 그가 동인뿐만 아니라 서인의 불만을 동시에 사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같이 서인세력의 비난이 계속됨에 따라 그가 사직을 요청하자 선조는

요사이 염치가 전부 없어지지 않고 나라 일도 무너지는데 이르지 않은 것은 내가 경을 등용하여 冢宰로 삼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모든 관료들의 본모기가 될 만하고 사나운 물살 속의 砥柱와 같은데 누가 감히 휘방할 것인가. 저 狂夫의 비난하는 말이야 한 아이의 웃음거리도 되지 못할 것이다. 슬프다! 朴濟가 경을 비방하고 金應生이 경을 참소하더니, 이제 또 趙憲이 경을 무함하였다. 어찌하여 험뜯는 자가 이리 많은가. 진실로 내가 경을 대우함이 정성스럽지 못한 때문이리라. 참소가 이미 세 번 이르렀다고 하나 어찌 감히 벼들의 복을 던져버릴 것인가.<sup>66)</sup>

라며 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해가 呈辭를 계속하자 선조는 時輩의 모함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을 지킬 것을 당부하거나,<sup>67)</sup> 偏黨을 만든 간사한 무리들의 척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sup>68)</sup>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國事가 우선이라<sup>69)</sup>는 논리 등을 내세

64) 『선조실록』 권19, 18년 4월 28일.

65) 『선조실록』 권17, 16년 9월 6일 및 권20, 19년 10월 20일.

66) 『선조실록』 권20, 19년 10월 27일.

67) 『선조실록』 권21, 20년 4월 9일.

68) 『선조실록』 권21, 20년 7월 15일.

69) 『선조실록』 권22, 21년 1월 26일.

우며 사직을 허용하지 않고 그에게 出仕를 독려하곤 했다.

선조의 이산해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그의 공정한 인사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그의 인품에서 풍기는 면모가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은 輪對官 金應生이 이산해가 이조판서로 오래 재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선조가 반박하면서

지금 이조판서는 순후한 덕과 탁월한 재주를 겸비했으며 넓은 기국과 아량에 다 충절까지 남다르다. …… 말은 마치 입에서 나오지 않은 듯하고 몸은 마치 옷도 가누지 못할 것처럼 나약해 보이지만, 진실한 기운이 하나로 뭉쳐져 교만하거나 형식적이거나 궤변을 늘어놓는 태도가 전혀 없다. 난폭하거나 거만한 자가 보면 공경하기에 충분하고 간교하거나 위선적인 자가 보더라도 정성을 다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사람은上古의 인물이지 東方의 인물이 아니다. 비록 풀 惠帝에게 만나보게 했더라도 한눈에 그가 군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다.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여 조정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비록 상을 주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매번 바라보면 일찍이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없었다. 임금의 사악한 마음이 자연히 소멸되고 말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절로 감화가 되니 참으로 군자 중에서도 군자다운 사람이라고 하겠다.<sup>70)</sup>

라며 그의 인품을 묘사하고 있는 것에서도 충분히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미루어 선조가 이산해를 정승으로 발탁한데 이어 己丑獄事가 일어나자 그에게 수습을 일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선조 22년(1589) 10월 2일 밤 황해도관찰사 韓準(1542~1601) 등이 왕에게 비밀장계를 올리면서 시작된 鄭汝立(1546~1589)의 獄事는 동·서인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상당한 정치적 과장을 야기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이 東人인 右議政 鄭彦信(1527~1591)이 倭官으로 임명된 가운데 한 달 만에 순조

70) 『鵝溪遺稿』年譜, 萬曆 13년(1585).

롭게 마무리되는 듯하다. 선조의 求言教를 계기로 확대일로를 치닫게 된 점은 여기에 선조의 정치적 의도도 적지 않게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sup>71)</sup>

사건의 전모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朝野 사림의 公論이 비등해지자 선조는 西人인 鄭澈을 委官으로 임명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鄭汝立이 동인 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인세력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의식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정철 등 서인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정여립과 직·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폭넓게 조사하고 나섰다. 여기에 金字顯(1540~1603)·柳成龍 등 동인의 핵심인물들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피화인이 늘어나면서 옥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선조는 좌의정 이산해에게 다시 과격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등 수습에 나서도록 지시했다.<sup>72)</sup>

그 같은 선조의 조치에는 기축옥사로 인해 파생되는 黨禍를 사전에 예방하면서도 그것의 확대를 통해 군주에 대한 사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선조와 이산해의 정치적 교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도 선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의 정치적 위상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당시 丁巖壽 등 호남유생들이 그의 옥사연루를 제기할<sup>73)</sup> 뿐만 아니라 전주유생 梁誦이 정언신의 정치보복성 발언 개입을 주장하는<sup>74)</sup> 등 서인세력의 집중공세로 인해 그가 병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명하자, 선조가 備忘記에서

경의 辭章을 보고 깜짝 놀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었다.

71) 이상혁, 「조선조 기축옥사와 선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 43, 역사교육학회, 2009.

72) 『선조실록』 권23, 22년 12월 9일.

73) 『선조수정실록』 권23, 22년 12월 1일.

74) 『선조수정실록』 권24, 23년 4월 1일.

지금에 어느 때인데 사퇴하려고 하는가. 깊이 그 까닭을 생각하니 필시 과인이 우매하여 포필하기에 부족하고 국사는 이제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다고 여긴 때문 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던 말인가. 지금의 時事로 말하자면 얘기가 길다. 국가는 오직 경을 의지하고 있으니 경이 나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전에 든 병이 오늘에 낫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하루 속히 출사하기 바란다.<sup>75)</sup>

라며 모함을 일삼는 무리들의 농간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만류하는 한편 유생들을 刑律로 다스릴 것을 지시한 것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선조 24년(1591) 建儲議 사건에 이산해가 사실상 연루되었음에도<sup>76)</sup> 불구하고 정철이 실각을 당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하겠다.

선조의 이산해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에는 그가 비록 동인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명분을 우선하는 정치세력의 전반적인 경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동인세력이 남인·북인으로 분기한 뒤 영의정으로서 북인의 영수로까지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播遷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북인을 비롯한 정치세력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유배되는 과정이 그러한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당시 史官이 이산해의 죄를 묻는데 피차가 따로 없었다<sup>77)</sup>고 전한 것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사실 倭賊이 동래성을 무너뜨린데 이어 충주성마저 함락시키고 도성을 위협하고 있는 데다, 백성들마저 흩어져 도성을 지킬 전열을 가다듬을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sup>78)</sup> 제기한 그의 파천론은 마지막 현실적 대안이 되는 셈이었다. 군주가 적에 의해 포로가 된다는 것은 곧 패전을 의미하는 것이자

75) 『선조실록』 권24, 23년 4월 8일.

76) 『선조수정실록』 권25, 24년 2월 1일.

77) 『선조실록』 권59, 28년 1월 10일.

78) 『선조실록』 권26, 25년 4월 28일.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관들이 파천을 건의한 그를 斬刑해야 한다며 탄핵하고 나선 것은 명분을 앞세워 그와 선조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조가 이산해보다 왕이 먼저 파천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李憲國(1525~1602)의 주장에 동의하는 한편, 오히려 군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柳成龍의 파직을 지시하는<sup>79)</sup> 등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정치세력의 집요한 공세에 밀려 결국 削職과 더불어 中途付處하도록 하는 전교를 내리고 말았다.<sup>80)</sup>

그 결과 平海에 付處된 이산해는 국난극복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전란의 추이를 멀리서 지켜보아야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학작품을 통해 선조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편,

동산 가득 긴 대숲에 푸른 구름 깊은데(滿園脩竹碧雲深)  
지친 새는 석양에 보금자리 찾아 날아가네(倦爲知歸趁夕陰)  
우스워라 세간의 명리를 좇는 사람이여(堪笑世間名利子)  
백발에 끝없는 탐욕 그 무슨 마음인가(白頭乾沒竟何心)<sup>81)</sup>

라며 자신의 판단과 행보가 名利나 貪欲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궁극에 왕정을 강화하는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항변하기도 했다.

이산해는 선조 28년(1595) 經筵에서 鄭琢(1526~1605)이 전란 초기의 급박한 상황은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자라도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과거에도 임금의 파천으로 國都를 옮긴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면을 요청한<sup>82)</sup> 것을 계기로 解配와 더불어 職牒을 돌려받았다. 領

79)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2일.

80)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17일.

81) 『鵝溪遺稿』 권1, 箕城錄 黃保八咏贈安善元(竹園栖禽).

82) 『선조실록』 권59, 28년 1월 10일.

敦寧府事로 복귀한 그는 정치적 현안에 관심을 갖기보다 전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진력했다. 그는 선조에게 상소로 時弊十條를 제시하며 현안타개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sup>83)</sup> 동시에 筭子로 각종 時務策을 제시하기도<sup>84)</sup> 했으며, 병으로 일시 요양을 떠나기 전 직접 왕을 면대한 자리에서는 국가중흥의 시급한 과제가 인심을 수습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벌을 분명하게 하고 뛰어난 장수를 선발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sup>85)</sup> 또한 그는 전란이 끝난 뒤에도 민생복구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할<sup>86)</sup> 뿐만 아니라 외교문서의 작성을 전담하며 중국의 광해군 세자인준 등을 위한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고,<sup>87)</sup> 비변사로 하여금 舟師를 정리하도록 하는<sup>88)</sup> 등 변방의 방어를 강화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선조 33년(1600) 전후복구를 주도할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한 선조가 다시 그를 領議政으로 임명하게 된<sup>89)</sup> 사정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산해가 영의정에 임명되자마자 朴忠侃(?~1601)이 그를 의식하여 북인이 大北·小北으로 나누어지고 대북이 다시 骨北·肉北·皮北으로 분열하여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며 그를 정치적 혼란의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선조는 조정의 일은 본래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만, 향간의 잡다한 소문을 듣고 인심을 동요시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sup>90)</sup>며 일축했다. 이같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재개될 조짐을 보

83) 『선조실록』 권63, 28년 5월 7일.

84) 『鵝溪遺稿』 권5, 筭類 陳弊筭(1).

85) 『선조실록』 권68, 28년 10월 6일.

86) 『鵝溪遺稿』 권5, 筭類 陳弊筭(3).

87) 『선조실록』 권107, 31년 12월 28일.

88) 『선조실록』 권114, 32년 6월 23일.

89) 『선조실록』 권121, 33년 1월 21일.

90) 『선조실록』 권121, 33년 1월 23일.

## 이자 이산해는 선조에게

나라에서 인재를 기용할 때에는 그 器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은 변정이 공허한데다가 전국이 전란의 상처로 인해 邦本이 위태롭고 公私가 모두 탕진되었으며, 謀臣과 猛將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機械와 軍糧도 남김없이 탕진되었습니다. 나라의 위급함이 임진년과 비교해 10배가 넘을 정도입니다. 이런 때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碩輔와, 혼란을 수습하여 바른 곳으로 되돌릴 수 있는 俊傑이 합심 협력하여 정성을 다 바쳐 노력한 다음에야 만에 하나 부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찾아 도모하지 않고 이미 시험하여 무능한 것이 드러난 사람에게 新命이 내려졌으니, 이는 신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sup>91)</sup>

라며 사직을 요청했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이 선조의 王政을 보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전후복구를 위한 국가적 현안보다 정치적 이해에 집착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게 개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선조는 이산해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자세를 견지했다. 이는 물론 그의 정치적 위상을 배경으로 왕정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치세력의 시기와 질시를 초래하여 그가 끊임없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晩節을 보전하지 못했다<sup>92)</sup>든가, 벼슬을 잃을까 걱정하여 세상을 속였다<sup>93)</sup>거나, 사람을 교란시키는 일에만 몰두했다<sup>94)</sup>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선조의 그에 대한 신임에 대한 정치세력의 질시가 저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겠다.

91) 『선조실록』 권121, 33년 1월 25일.

92) 『선조실록』 권122, 33년 2월 19일.

93) 『선조실록』 권138, 34년 6월 3일.

94) 『선조실록』 권138, 34년 6월 9일.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선조대 정국의 핵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뒤에 李植(1584~1647)이

우리나라 문물의 구비와 인재의 모음이 宣祖代보다 성대한 때가 없었습니다. 비록 의리를 지키다가 난을 만나 찬란한 문물이 무너지기는 하였으나, 天心이 비호하여 강토가 다시 정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인의 깊은 우려로 인도된 것 아님이 없고, 또 事機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 공적은 후세에 전할 만한 것 아님이 없습니다.<sup>95)</sup>

라고 하듯이 선조대가 문물의 번성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는 시대로 평가되는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이산해는 선조대의 거의 전시기에 걸쳐 군주의 확고한 신뢰를 배경으로 정국의 핵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그의 천부적인 순수한 인품과 탁월한 학문적 재능,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자세가 전제되어 있었지만, 그 근처에는 講經과 詞章을 바탕으로 王政을 보좌해 온 家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독자적 정치철학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림세력의 역학관계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왕정체제의 강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했던 것이다. 선조가 뚜렷한 정치적 후원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강화를 통해 정국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치세력의 대립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그 같은 역할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왕정을 옹호하되 사림의 정치철학 구현에 비중을 둔 정치세력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 그가 적지 않은 정치적 굴곡을 겪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95) 『인조실록』 권32, 19년 2월 12일.

#### 4. 맺음말

이상 이산해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선조대 정국과 연관하여 조명해 보았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조대는 조선왕조의 정치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던 시기였다. 물론 거기에는 훈척정권의 배타적 권력독점이 초래한 정치·사회·경제적인 혼란과 모순에 대한 반성이 작용하고 있지만, 歐陽脩·朱熹의 朋黨論에 토대를 둔 성리학적 정치개혁의 논리가 저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조대 사립들은 훈척정치의 잔재청산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시각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더구나 그들이 학파의 세계관에 연원을 두고 정립한 정치철학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사림세력의 분열은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같은 사림의 분열현상은 비록 군주가 신권의 집중적인 견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경영에 있어 군주의 철학이 반영될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군주의 정치적 위상을 약화시킬 우려를 야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확고한 정치적 기반이 없이 즉위한 선조에게 있어 그것은 절박한 과제이기도 했다. 선조가 이산해를 정치적 동반자로 선택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산해는 어릴 적부터 탁월한 학문적 재능과 天仙과 같은 순수한 인품과 사심을 배제한 공정한 자세로 주위의 기대를 받았다. 또한 그는 講經과 詞章을 위주로 王政을 보좌해온 家風을 계승하며 治人의 방법을 습득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경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독자적인 세계관의 구축을 시도하며 修己에 치중하는 당시 사림의 경향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李滉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버지 李之蕃과, 李珣를 비롯한 사

림들과 폭넓은 학문적 유대를 맺고 있던 숙부 李之菡을 통해 修己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기도 했다. 그가 23세의 나이로 大科에 합격하여 일찍부터 官界에 진출해 두각을 나타내고, 學派 및 政派를 초월한 광범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그것이 또한 그가 선조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으며 정국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산해는 정치세력의 역학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 역시 정치적 동반자의 확보를 위해 견해를 같이하는 정치집단과 연대하고 있었다. 이는 선조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면서도 군주 중심의 정국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급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청년사림에 연원을 둔 東人·北人·大北의 정치세력과 공조하며 선조대의 개혁과 더불어 왕정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정 정치세력의 독점적 정국주도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선조의 의도를 반영해 정치적 공조에 선택적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여기에는 국가경영에 있어 확고한 원칙을 준수하는 常經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權宜를 활용하는 그의 정치철학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가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당색을 초월한 공정한 인사를 주도하는 등 군주의 의중이 투영된 독자적인 행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이산해의 독자적 행보의 궁극적 목표는 군주의 정국주도권을 보장하는 왕정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와 선조의 밀착된 관계는 왕권을 배경으로 한 權臣의 등장을 경계하는 사림세력 전반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었다. 더구나 그것은 독자적인 정치철학의 현실적용을 통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사림세력의 역학구도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가 사림세력의 집중적인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적지 않은 정치적 굴곡을 겪어야 했던 사정도 거기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선조의 신뢰는 변함이 없었고, 그 역시 거기에 부응해 왕정의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일에만 진력했다. 선조대가 문물의 번성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는 시대로 평가될 수 있었던 초석은 여기에서 마련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산해의 역사적 위상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太祖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肅宗實錄』, 『國朝文科榜目』, 『司馬榜目』, 『鵝溪遺稿』, 『栗谷全書』.
- 이수건, 『영남학과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김 돈,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7.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농업기술 발달과 사회변동—』, 지식산업사, 2008.
- 설석규, 『조선중기 사림의 도학과 정치철학』, 경북대출판부, 2009.
- 구덕희, 「선조대 후반(1594~1608)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20, 서울대 국사학과, 1988.
- 김형수, 「선조 초년의 신구갈등과 정국동향」, 『국사관논총』34, 국사편찬위원회, 1992.
- 이태진,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 1993.
- 한희숙, 「16세기 임궐경 난의 성격」, 『한국사연구』 89, 한국사연구회, 1995.
- 남달우, 「조선 선조대 정국운영에 관한 연구」, 인하대박사학위논문, 1998.
- 이태진,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테학사, 2003.
- 이희환, 「선조대 동·서 분당의 배경과 원인」, 『전북사학』 27, 전북사학회, 2004.
- 김성우, 「선조대 사림파의 정국장악과 개혁노선의 충돌」,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 이상혁, 「조선조 기축옥사와 선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 43, 역사교육학회, 2009.

Abstract

## King Seonjo Reign and Lee San-hae's Political Role

Sul, Suk-Kyu

This study is conducted to look into Lee San-hae's role regarding political trend in King Seonjo reign.

Lee San-hae secured the status as a key based on king's trust throughout King Seonjo reign. The reason is due to his born pure personality and excellent academic ability, and objective and fair attitude, and it is particularly due to his family tradition assisting the royal regime based on Confucian classics(講經) and Sa-jang(詞章). Accordingly, to apply independent political philosophy to the reality, he tried to intensify the royal regime maintaining political balance in the situation where dynamic relations of sarim force governed. Although King Seonjo came to throne without political supporters, he controlled the contrast of political power keeping leadership of political situation by intensify loyal power, and Lee San-hae's role was greatly affected.

However, the close relations between King Seonjo and him had a possibility of raising overall contrast of sarim force that was against a powerful courtier based on royal authority. In addition, it could be a substantial risk of dynamic structure of sarim force that tried to intensify political status by applying independent political philosophy to the reality. This explained the reason why he was the target of intensive criticism and attack from sarim force and had lots of political hardships. Despite that, King Seonjo's trust in him was firm and he also only focused on firmly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the loyal regime. His efforts became the foundation to make King Seonjo Reign regarded as the period of the model to future generations due to the prosperity of culture.

### Key Word

Lee San-Hae(李山海), Sarim politics(士林政治), Dohak politics(道學政治), Bungdang politics(朋黨政治), the royal regime(王政), Study of Sa-jang(詞章學), Righteousness Learning(義理學)

▪ 논문투고일 : 2009.12.30. 심사시작일 : 2010.1.29. 심사완료일 : 2010.2.8.